

내 인생을 만든 한 권의 책



김진욱
(사) 21세기군사연구소 소장 / 국제정치학 박사

이리 뛰고, 저리 뛰다 결국 환갑의 나이가 되고 말았다. 남은 인생이 분명 살아온 인생보다 짧을 게다. 세월의 속도감도 훨씬 더 빨라질 게다. 어~ 하다가 곧 임종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60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남은 인생을 어찌 살까 생각해 보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60년의 세월이 나에게겐 역경(逆境)의 기간이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고민해 왔다. 생각해 보니 그저 편한 대로 순리를 따르지 않고, 마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치듯, 뭔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도전하고 또 부딪쳐 왔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버지를 보고, 또 조상들을 생각해 볼 때, 유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어린 시절 읽은 단 한 권의 책 때문이었다.

그 책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충청도 산골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책의 영향력은 내 인생에 절대적인 것이었

다. ‘인류의 영원한 지혜’라는 책이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너털너털 떨어진 채로 가끔 읽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기독교 사상,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리엔트, 인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사상가, 철학자, 정치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벽이 있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간 ‘인류의 영원한 지혜’의 첫 페이지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는 성격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지난 60년을 살아오면서 현실과 상황에 적응하기 보다 현실과 상황을 바꾸려고 발버둥치며 변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지혜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란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변민하고 방황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질적인 생활이나 현실생활을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의 의지를 결정했던 것 같다. 인생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책이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렇게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연구소를 하나 설립하게 되었고 또 인류의 진보를 위한 어떤 일에 매진할 수도 있었다.

이제 60 이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 또 하나의 책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의 영생과 인류의 진보, 우주와 그리고 절대자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유란시아서’라는 책이다. 아마도 이 책이 또 나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한 순간도 이 책을 놓치고 싶지가 않다. 벌써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있다. 사회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일은 아무래도 내 몫은 아닌 것 같다. 나에게서는 뭔가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가

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같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인간의 죽음 이후는 무엇인지 뭔가 근본적인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다. 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만으로는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나간 많은 시간 동안에 현자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험도 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노력은 이 땅에 상그릴라와 같은 이상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책에서는 그 시대를 ‘빛과 생명의 시대(The age of light and life)’라고 이름 짓고 있고,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진보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한 해에 옛 친구들과 더 깊은 정이 들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친구들이었다. 덕분에 연구소의 실적도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금년에도 같이 열심히 하면서 남은 인생, 우리 연구소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지난 60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남은 삶을 즐기롭게 살아야겠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아리랑 라디오에 ‘Catch the Wav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의 볼거리, 먹거리 등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잘 알지도 모른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침에 잠이 없어 재방송을 자주 듣게 되어 그 프로그램의 ‘Rainbow Bridge’라는 코너에 글을 써서 보냈더니 당첨이 되어 선물이 온 것이다. 남은 인생의 상쾌한 출발이다. **KDR**

